

The Gospel of Mark

Sermon 47 – Sermon Notes

Title: “Blind Bartimaeus”

Scripture: Mark 10:46-52

Date preached: July 30th 2023

Scripture: Mark 10:46-52

46 Now they came to Jericho. As He went out of Jericho with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blind Bartimaeus, the son of Timaeus, sat by the road begging. 47 And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cry out and say,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8 Then many warned him to be quiet; but he cried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9 So Jesus stood still and commanded him to be called.

Then they called the blind man, saying to him, “Be of good cheer. Rise, He is calling you.”

50 And throwing aside his garment, he rose and came to Jesus. 51 So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 blind man said to Him, “Rabboni, that I may receive my sight.” 52 Then Jesus said to him,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And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on the road.

46 예수님의 일행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 곳을 나갈 때였다. 디마오의 아들인 소경 자비 바디마오가 길가에 있었다. 47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8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 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50 그러자 소경이 겹옷을 벗어 던지고 발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51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52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Review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final six verses of chapter 10. However before we do that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week.

We found the Lord and His disciples travelling through the region of Perea. They are making their way south and will make a brief stop in Jericho before continuing on to Jerusalem. As was the custom in those days the Lord Jesus, as the rabbi (teacher) or master was leading the way. There was something in the manner in which He led them that "amazed" the disciples. Mark doesn't explain why, so we are left to speculate. It seems most likely that they were amazed at how deliberate and purposeful He was. Despite knowing what lay ahead he strode on boldly without displaying any fear or apprehension. The disciples themselves felt fear. They feared what awaited them in Jerusalem. They knew that the religious authorities hated Jesus and wanted Him gone. It is at this point that Jesus presents His third and final passion prediction. As I said last time this prediction contains all that we saw in the previous two, but also adds some additional details. The most important addition is the role that the Gentiles will play in Christ's passion. He will be handed over to the Gentiles, meaning the Romans. This of course was a terrible insult for a Jew. How horrendous to be rejected by your own people. A people whom you had come to save, and given over into the hands of wicked pagans. It is hard to conceive of a more degrading event. It is the Romans who will mock Him, scourge Him, spit on Him and then kill Him. This was what awaited

Jesus in Jerusalem. This news should have finally jolted the disciples out of any pretense they had that Jesus was about to establish an earthly kingdom. This however is not what happens.

After the first passion prediction it was Peter who spoke up to rebuke Jesus (Mark 8:31-33). I'm sure you remember the stinging reply Jesus gave him. Following the second prediction the disciples are still confused and puzzled. They didn't understand Jesus' words and were afraid to ask Him to explain (Mark 9:30-32). On this final occasion it is James and John who demonstrate by their words and actions that they still do not understand what's going on.

They approach Jesus and ask Him to do whatever they ask. It was an incredibly bold thing to do. But perhaps their place in Jesus inner circle led them to believe that they were special. That they had the right to ask for whatever they wanted. What was it they wanted? Something small, something insignificant? No, what they wanted was the place of prestige and honor in Christ's glorious Kingdom. They wanted to sit on the right and left of Christ's throne. How arrogant and prideful. To think that such a place should be given to them over and above everyone else. The Lord asks them if they are able to go through the pain and suffering that He will soon have to endure. He wants to know whether they can bear the wrath that God is about to pour out. They rather glibly answer that they are able. Jesus then tells them that it is the Father who assigns these positions, not Him. This is not Jesus saying that He is inferior in any way to the Father, but rather that in this case He is making himself subordinate to the will of the Father.

When the other ten disciples hear about what James and John have done how do they respond? Exactly as we'd expect. They are greatly displeased with the "Sons of thunder." In order to restore order and prevent division the Lord Jesus calls the disciples to Himself. He patiently explains how things differ between His Kingdom and the world at large. In the Gentile world men love positions of power and prestige. They love to "lord it over others." To attain this power men act in selfish, mean and self-serving ways. They will do all they can to step on others on the way up the social ladder. But in God's Kingdom a whole different system is in operation. God is concerned with humility, service and sacrifice. God rewards those who are joyful and willing in their service to others. The slaves who are at the bottom in this world are on the top in God's world. The section ends with Jesus reminding His hearers that these are not just platitudes. Leaders today often tell people what to do, and then ignore their own instructions. We might express it in the following way, "Do as I say not as I do." Not the Lord Jesus. He modelled exactly how we are to live. Jesus says, "Do as I say and as I did." We are to follow as best we can His example.

Today we are going to meet blind Bartimaeus.

오늘 우리는 10 장의 마지막 6 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내용을 짧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페레아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을 향해 가고 있으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러 고에 잠시 들를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례대로 주 예수께서 랍비(교사)로서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신 도중에 제자들을 "놀리게" 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므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었는지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종교 권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분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을 하십니다. 지난 번에 말했듯이 이 예언에는 이전 두 번의 예언에서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몇 가지 세부 정보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가 사항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수행할 역할입니다. 그는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주께서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이 오히려 악한 이방인의 손에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굴욕적인 사건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

고 침을 뱉고,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는 것은 로마인들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지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난 예언 후에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막 8:31-33).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따끔한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막 9:30-32). 이 마지막 경우에도 그들이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함을 아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엄청난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서 그들의 위치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믿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일까요? 아니,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위신과 영예를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좌우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그런 자리가 누구보다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머지않아 감당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다소 어설픔게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러한 위치를 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보다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종속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 제자는 아고보와 요한이 한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천둥의 아들들"에게 크게 불쾌해합니다. 질서를 회복하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과 일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침을성 있게 설명하십니다. 이방 세계에서 사람들은 권세와 위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교적 사다리를 오르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을 밟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
 □ □□□ □□ □□ □□ □□ □□□□□□□□□□ . 이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정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 청중들에게 이것들이 단지 진부한 말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다음 자기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행하는 대로가 아니라 □□ 말한 대로 해'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고 행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경 바다매오를 만나러 갑니다.

46 Now they came to Jericho. As He went out of Jericho with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blind Bartimaeus, the son of Timaeus, sat by the road begging.

We come today to a significant moment in Mark's gospel.

The miracle that we will examine today is the final healing miracle recorded by Mark. We are now entering the final stages of the Lord Jesus' earthly ministry. In a little over a week our Lord and saviour will be nailed to a cross.

The account of the healing of the blind beggar Bartimaeus appears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Matthew 20: 29-34, Luke 18:35-43). Whilst similar in most of the important details there are some differences which I shall highlight as we go through Mark's account.

Jesus as we have seen has been travelling through the region of Perea. He now recrosses the Jordan river and arrives in the city of Jericho. Jericho was located about 5 miles west of the Jordan and

about 15 miles from Jerusalem. Of course that doesn't really tell us the full story. Jerusalem sits on top of the mountain at 785 meters above sea level. Jericho way down below in the valley lying at 258 meters below sea level. That's quite a hike that Jesus and the disciples will soon have to make.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Jericho. We are all very familiar with the Israelit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As they began to conquer the land of Canaan Joshua led the people to fortified city of Jericho (Joshua 5-6). Every child who has ever attended Sunday school knows about how God caused the walls to fall down. That was old Jericho. I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oldest known human settlements. However by Jesus day that ancient settlement site had largely been abandoned. A new city of Jericho had been constructed by Herod the Great.

46 예수님의 일행이 예리고에 들었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 곳을 나갈 때였다 다메오의 아들인 소경 가지 바다메오가 길가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적은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치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 주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하실 것입니다.

눈먼 가지 바다메오의 치유 이야기는 세 공관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29-34, 누가복음 18:35-43). 대부분의 중요한 세부 사항은 유사하지만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강조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페레아 지방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 예리고성에 도착합니다. 예리고는 요단에서 서쪽으로 약 5 마일 예루살렘에서 약 15 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5m 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리고는 해수면보다 258 미터 아래에 있는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제자들이 곧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리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을 요새화된 예리고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 5-6 장). 주일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벽을 무너뜨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옛 예리고였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간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 그 고대 정착지는 대부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예리고의 새로운 도시는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He had his lavish winter palace built there. There was very good reason for that. It is warm in Jericho all year around. Josephus tells us that even when there is snow in Jerusalem you were able to wear thin linen clothes in Jericho.

It was also due to a number of underground springs a very lush and fertile area. It's very noticeable when you look at pictures or photos of Jericho that it is surrounded by inhospitable looking desert. It is a green oasis encircled by barren sand and rock. In the Old Testament it was known as the "city of palms" (Judges 3:13).

In Jesus day it was famous for the delicious foods that were grown in its fertile soil. It was renowned for growing almonds, figs, dates and perhaps surprisingly roses. We could accurately describe Jericho as being like a beautiful fertile garden. Let's get back to our study.

그는 호화로운 겨울 궁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리고는 일년 내내 따뜻한

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 눈이 와도 예리고에서는 얇은 모시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곳은 또한 매우 무성하고 비옥한 지역이었는데 많은 지하 샘 때문이었습니다. 예리고의 사진을 보면 예리고가 황폐해 보이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매우 눈에 띄니다. 황량한 모래와 비위로 둘러싸인 녹색 오아시스입니다. 구약에서 그곳은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알려졌습니다(꺠 3:13).

예수 시대에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아몬드, 무화과, 대추야자, 놀랍게도 장미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예리고는 아름답고 비옥한 정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Mark tells us that it is as Jesus is leaving Jericho followed by the disciples and a large crowd that He meets Bartimaeus. Matthew is his account agrees. Luke however says that they met as Jesus came near to Jericho. I think it is very easy to reconcile this apparent discrepancy. As I just noted there were two Jericho's, an old and a new. So the Lord Jesus met Bartimaeus as He left one and just before He entered the second.

What do we know about Bartimaeus? Well as you are probably aware in Hebrew the prefix “bar” means “son of.” So the name Bartimaeus means “son of Timaeus or Tiamai.” Mark includes this detail because he was writing to Gentiles who were maybe unaware of this fact. We do not know the nature of extent of his blindness. Had he been born blind or had he become blind later in life? We are not told.

I have spoken before about the Jewish attitude towards blindness. The belief was that people were blind because God was cursing them. As evidence for this let us read the exchange Jesus had with His disciples in John chapter 9.

1 Now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o was blind from birth. 2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John 9:1-2)

Therefore blind people could not find legitimate opportunities to work and were forced to beg on the streets. Since the road runn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as a popular pilgrim route it was a good place to sit and beg for alms. The Jews were encouraged to be charitable so the blind and crippled could just about survive.

Another difference we see between the three gospel accounts concerns the number of blind men. Mark and Luke refer to only one man. Matthew says there were two. How might we reconcile this difference? Well, Mark is telling us the story of just one of these blind men. He doesn't say that was only one man. It would be like me saying that I saw Tyrone in church today. There were other people of course but my attention is only on Tyrone. Interestingly Mark is the only writer to tell us the man's name. That is actually very unusual. Mark only gives the names of two people involved in healing miracles; Jairus (Mark 5:22) and now Bartimaeus. So why is Bartimaeus named? We are left to speculate a little. Is it perhaps because following the miracle Bartimaeus went on to become a well known figure in the early church? Is Mark including his name so that his readers know the background of someone they were familiar with? I think it's possible. Let us continue.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예리고를 떠나실 때 바디매오를 만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들이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명백한 불일치를 조율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꺠꺠꺠 꺠꺠꺠꺠 꺠꺠꺠 Jericho 가 있었는데, 옛 것과 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옛 예리고를 떠나시고 새로운 예리고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바디매오를 만나셨습니다.

바디매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접두사 "bar"는 "~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디매오라는 이름은 “다매오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아방인들에게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의 실명 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소경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명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에 대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 9 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보겠습니다.

1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때부터 소경된 □□□ 보시고 2 그분의 제자들이 “랍비여 이 □□□ 소경으로 □ 것이 낫게 하소서” 하니 (요한복음 9:1-2)

따라서 소경들은 정당한 노동 기회를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순례길이었기 때문에 구걸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과 절름발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고 격려 받았습니다.

세 복음서 기록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이점은 소경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단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마태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 소경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Tyrone 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 관심은 Tyrone 에만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는 그 소경의 이름을 말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가는 차유의 기적에 관련된 두 사람의 이름만 알려줍니다. 아이로 (마가복음 5:22)와 이제 바디매오입니다. 그러면 바디매오의 이름은 왜 알려줄까요? 약간의 추측을 해봅시다. 기적 이후에 혹시 바디매오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마가는 독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배경을 알려주려고 그의 이름을 포함시켰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합시다.

47 And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cry out and say,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As Bartimaeus is sitting by the road he becomes aware of the crowd and noise. It must have been obvious that something a little out of the ordinary was occurring. Luke tells us that he asked some of those nearby what was going on (Luke 18:36). They tell him that Jesus of Nazareth or Jesus the Nazarene was passing by. We tend to think that the name Jesus / Joshua is being a special and unique name. In reality, it was a fairly common name at that time. So it was not unusual to identify people by some distinguishing thing about them, such as their place of origin or occupation.

Here is what is interesting. The people who could see Jesus only saw an ordinary man hailing from Nazareth. He was nothing special or out of the ordinary. It was only the blind man who sensed exactly who Jesus really was. What had Bartimaeus heard about Jesus? Had he heard of the the Lord's confrontations with the Pharisees. Or what is more likely given his life situation, is that he had heard about the amazing miracles that our saviour had performed? Whatever he had heard about Jesus Bartimaeus had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regarding who Jesus was.

So as Jesus drew near Bartimaeus began to cry out or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The word Mark uses here for “to cry out” is the Greek verb *krazō*. It’s a very strong word. In Mark chapter 5 he uses the same word to speak of the sounds made by insane epileptics and demon-possessed people. We might better say that Bartimaeus “screamed out loudly.” The words he uses to address Jesus are highly poignant. He doesn't call Him, “Jesus the Nazarene,” or “Jesus the rabbi.” He calls Him, **Jesus the Son of David**. This is messianic title. Back in 2nd Samuel we read about the words of God given to the prophet Nathan. Nathan spoke to King David and told him of the future Messiah to come. He would come from the lineage or line of David (2 Sam 7:12-16).

Therefore he would be the son of David.

So Bartimaeus knew exactly who was approaching. This was the long-awaited deliverer,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This was the Messiah. No wonder Bartimaeus is excited.

What does Bartimaeus want from Jesus? What he wants is the Lord's mercy. He recognised himself as a sinner in desperate need of a saviour. How true this is for all of us. Oh Lord, have mercy on us. Let us read on.

47 **바디매오가 소리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바디매오는 길가에 앉아 있을 때 군중들이 소음을 듣게 됩니다.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가 근처에 있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눅 18:36). 그들은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이라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신지나 직업과 같은 특정한 특징으로 식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자들은 온 평범한 바디매오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하지도 비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정확히 감지한 눈만 바디매오 뿐이었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맞서셨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의 고를 때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들었는지 바디매오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자 바디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가 여기서 “외치다”로 단어는 헬리어 동사 *krazō* 입니다.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5 장에서 마친 간질병자와 귀신 들린 소리에 대해 말할 때 같은 단어가. 바디매오가 “외쳤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언급하기 위해 말은 매우 신랄합니다. 그는 그분을 “예수” “랍비 예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입니다(삼하 7:12-16).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매오는 누가 다가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바디매오가 흥분한 것도 당연합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48 Then many warned him to be quiet; but he cried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9 So Jesus stood still and commanded him to be called. Then they called the blind man, saying to him, “Be of good cheer. Rise, He is calling you.”

The crowd, which was likely made up of pilgrims going up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were not pleased by Bartimaeus. He was an annoying and noisy nuisance. One of my big bugbears in Korea is people who carry loud radios when they are hiking in the mountains. If you

want to listen to jangly pop music whilst you hike then use earphones. Don't inflict others with your music and pollute the natural ambiance of the mountain. Anyway, back to our account. Why did they want to silence Bartimaeus?

Maybe they objected to his loud screams. Perhaps it was the disruption he was causing to their solemn pilgrimage. Or maybe it was theological, were they offended by the way he was addressing Jesus? We are not told, but we are told that they tried to make Bartimaeus be quiet, or literally shut up!

Their warning had no effect upon Bartimaeus. He would not be silenced. He just shouted louder and with greater urgency. He was not to be disappointed. Jesus had heard his cries. Jesus always hears our cries for mercy.

As an aside Jesus does not rebuke the man for using this Messianic title. He does not tell him that it does not apply to Him. Jesus accepts the title because He is the Messiah and it absolutely applies to Him.

The crowds response is amusing. They had been telling the man to shut up but as soon as Jesus shows an interest in him they are suddenly started treating him properly. They tell him that his cries have been noted, Jesus is calling to him and wants to meet him. Let us read on.

48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 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인 군중은 바디매오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가시고 시끄러운 골칫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산에서 하이킹을 할 때 시끄러운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 □□□ □□□ □□□ □□□□ □□□□□ . 당신의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산의 자연적인 분위기를 망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왜 바디매오를 짐짓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의 큰 비명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들의 엄숙한 순례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학적인 이유로 그가 예수를 부르는 방식에 기분이 상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바디매오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다는 것 문자 그대로 입을 다물게 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바디매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크게 그리고 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담으로 예수께서는 이 메시아의 호칭을 사용한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호칭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것이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 칭호를 받아들이십니다. 군중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그를 공손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50 And throwing aside his garment, he rose and came to Jesus.

It was common practice for beggars to sit on the ground and lay their outer garment over their legs and feet. It was used to gather the alms that passers-by would give. The outer garment was more like a cloak or shawl that you wore over your everyday clothes. The equivalent today to a jacket or over-coat. So in his haste to get to Jesus Mark tells us that he simply cast this outer garment away. Nothing would hinder his approach to the Lord.

But I wonder if more is intended by this seemingly insignificant detail. As a blind beggar what would this man have possessed? We must assume very little. This outer garment may have virtually been all he had. So does Mark want us to think that the man gave up all he had to follow Jesus. Just like the disciples (1:16-20; 10:28). They had walked away from their jobs, their families and their homes. This blind man was soon to do the same. It also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rich young ruler we read about recently. He had many possessions but was not willing to give any of them up to follow Jesus. Let us continue.

50 그러자 소경이 겹옷을 벗어 던지고 발뼉 일어나 예수님께 ㄴㅇㅇㅇ.

구걸하는 자들이 땅에 앉아 겹옷을 다리와 발 위에 덮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자선을 모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겹옷은 평상복 위에 입는 망토와 비슷했습니다. 오늘날 재킷이나 외투에 해당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서둘러 가려고 하면서 단순히 이 겹옷을 벗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겹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 세부 사항이 더 많은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로서 이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을까요?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겹옷은 사실상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가 예수님께 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1:16-20; 10:28). 그들은 직업 가족 집을 떠났습니다. 이 눈먼 사람도 머지않아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최근에 읽은 부자 청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중 어느 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합시다.

51 So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 blind man said to Him, “Rabboni, that I may receive my sight.”

When Bartimaeus comes to Him Jesus has a question for him. The question is,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You may remember Jesus asking the same question to James and John back in verse 36. They you will remember had a very selfish request to make. They wanted positions of power and honour in God's Kingdom. Bartimaeus wants just one thing. It is not something extravagant, exceptional or out of the ordinary like what James and John wanted. What he wanted was what most people take for granted; the ability to see again.

The term he uses to speak to Jesus is again interesting. He calls Him “Rabboni.” This term is used only twice in the New Testament. Here and in John's gospel. The only other person to call Jesus “Rabboni” is Mary Magdalene. On the third day following the crucifixion Mary goes to the tomb. She of course finds it empty and then strikes up a conversation with a helpful “gardener.” Let me read the appropriate verse.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and said to Him, “Rabboni!” (which is to say, Teacher). (John 20:16)

Rabbi means teacher or master. Today the equivalent term would be to call a teacher “sir.” When I was in school we called all male teachers “sir” as a mark of respect. Rabboni however expresses a deeper level of respect. It is also personalising your respect or honour, literally “my master or my teacher.” So in using this term Bartimaeus is expressing his humble submission towards Jesus. He is acknowledging that Jesus is his Lord and master. Let us see how this episode concludes.

51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바디매오가 그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ㄴㅇㅇㅇㅇ ㄴㅇㅇ ㄴㅇㅇㅇ ㄴㅇㅇ?” 36 절에서 예수님

52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 네 믿음이 너를 낮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

바디매오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그가 절실히 원했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마 20:34) 즉시 치유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도 마기도 소경을 만졌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마가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치유를 기록합니다. 물론 기적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었다고해서 모순을 발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음 그 사람의 눈을 만져 기적이 완수되었음을 나타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가 일어난 순서를 반드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복음서 저자들이 반드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만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매오의 시력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바디매오가 새로 발견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시력을 완전히 되찾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는 “따르다”는 개념을 제자도와 자주 연관시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막 10:21).

그렇다면 바디매오가 그리스도의 추종자 또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을까요? 그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던 백이십 명 중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초대 교회 설립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된 자, 유대 사회에서 세리보다 살짝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자가 만왕의 왕과 거룩한 도시로 동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첫째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첫째가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1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The right kind of faith

Mark tells us that Bartimaeus' faith was what made him well. As Christians, we often speak of faith. We talk about having faith in Jesus. Faith being able to move mountains. Holding on to our faith when times are challenging. Sometimes we use the word without really appreciating what it means. Fortunately for us the bible provides a very good and clear definition of faith.

In Hebrews 11:1 we read;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To put it simply faith is “trusting in something you cannot explicitly prove.” This definition of faith contains two aspects: intellectual assent and trust. Intellectual assent means believing something to be true. Trust is actually relying on that fact, or acting upon your belief that something is true. Let me give you an example.

Suppose you come into a room and see a chair. The chair looks to be sound. You intellectually believe that it is a good chair, and would be a safe place to sit. To then sit down is to place your trust in what you believe. You trust the chair will support you and not collapse to the ground under your

weight.

Let us now consider the case of Bartimaeus. He had heard some things about Jesus. He had come to believe that Jesus was no ordinary man, He was empowered by God to heal and perform other miracles. So intellectually Bartimaeus believed that Jesus could heal him. As the Messiah this was something He could do. When Jesus came it was time to put his trust in what he believed. It was time if you like to activate his faith. We saw this in his determination to attract the Lord's attention. When he had successfully attracted Jesus' attention he quickly obeyed the call to come. He humbly submitted himself to Jesus. He knew his place or position and also gave honour and respect to Jesus. Finally, he knew exactly what to ask when Jesus asked him. He was not greedy, selfish or self-serving. It was this combination that led to his miraculous healing.

I wonder how our faith compares. Do we step out boldly in faith like Bartimaeus did? Do we seize every opportunity God gives us? Or are we rather timid and afraid? Do we lack real trust that God will always be there to guide and empower us? Is our faith weak and lacking? May the Lord strengthen our faith so that we trust completely in Him in every situation.

1 참된 믿음

마가는 바디매오의 믿음이 그를 낮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믿음에 대한 매우 훌륭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간단히 말해서 믿음은 "명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에는 지적 동의와 신뢰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는 실제로 그 사실에 의존하거나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와서 의자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튼튼해 보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좋은 의자이고 앉기에 안전한 장소라고 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앉는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당신을 지탱하고 당신의 무게로 인해 땅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바디매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치유하고 다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신의 믿음을 신뢰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끌겠다는 그의 결심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을 때 그는 오리는 부름에 재빨리 순종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 영예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치유로 이어진 것은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 □□□ □□□□ □□□□□. 우리는 바디매오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진정한 신뢰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Following Christ

What or who do you follow? If you are a sports fan you may follow a particular team or player. Maybe you follow Tottenham Hotspur in the Premier League or the Boston Red Sox in Major League Baseball. If it's tennis or golf you enjoy you may have a favourite player you follow. Perhaps you follow a particular singer or pop group. You try when possible to attend their concerts, or buy their latest album. Maybe you follow an author, online pastor, podcaster, artist, movie director or other cultural figure. Most people follow or are interested in someone or something.

When we really follow someone with passion it can be all consuming. People devote their whole lives to following the object of their affections. There are men in the UK for example who attend every football match their team plays. Home and away and even matches in Europe. Just think of the money and time that must consume. Sometimes these men even have the name of their team or the club crest tattooed on their bodies. We might think this level of devotion is crazy. But to them the love of their football team is everything. That is what it truly means to follow.

So when Jesus tells people to follow Him that's what He's calling for. For us to give up everything, pick up our cross and follow Him. We may say that Bartimaeus didn't have much to give up. He was a beggar on the street. But the disciples did. They had jobs, maybe businesses, family, friends and homes. They gave them all up to follow Jesus.

What about us? Who or what are we following? Are we all in for Jesus or is He second, third or fourth on our list. Are we putting other people or things before Him? If we are it is time to stop and reconsider our priorities. If we love the Lord Jesus as we claim to do He must be number one. We must be ready and willing to follow Him in all circumstance and at all costs. It is not easy and that is why He sent us the Holy Spirit as our helper. Let us seek in all ways to follow Christ as He demands.

2 예수님 따라가기

여러분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따르나요? 스포츠 팬이라면 특정 팀이나 선수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Premier League 의 Tottenham Hotspur 꺾 Major League Baseball 의 Boston Red Sox 를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를 즐기는 경우 팔로우하는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가수나 팝 그룹을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의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최신 앨범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작가, 온라인 목사, 팟캐스터, 예술가, 영화 감독 또는 기타 문화적 인물을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꺾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팔로우하거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말로 따른다면 모든 것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꺾 애정의 대상을 따르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팀이 치르는 모든 축구 경기에 참석하는 꺾 있습니다. 홈경기, 원정 경기, 심지어 유럽전까지 따라갑니다. 소비해야 할 돈과 시간을 꺾 보십시오. 때때로 이 꺾 몸에 팀 이름이나 꺾 럽 문양 문신을 꺾 합니다. 이 수준의 헌신이 마쳤다고 꺾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축구팀에 대한 꺾 전부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따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꺾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할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의 걸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직업 꺾, 가족, 친구 및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또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 목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입니까? 다른 □□□□ 물질을 그분의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멈추고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주 예수를 □□□□□□ 그분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까이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힘쓰십시오.

